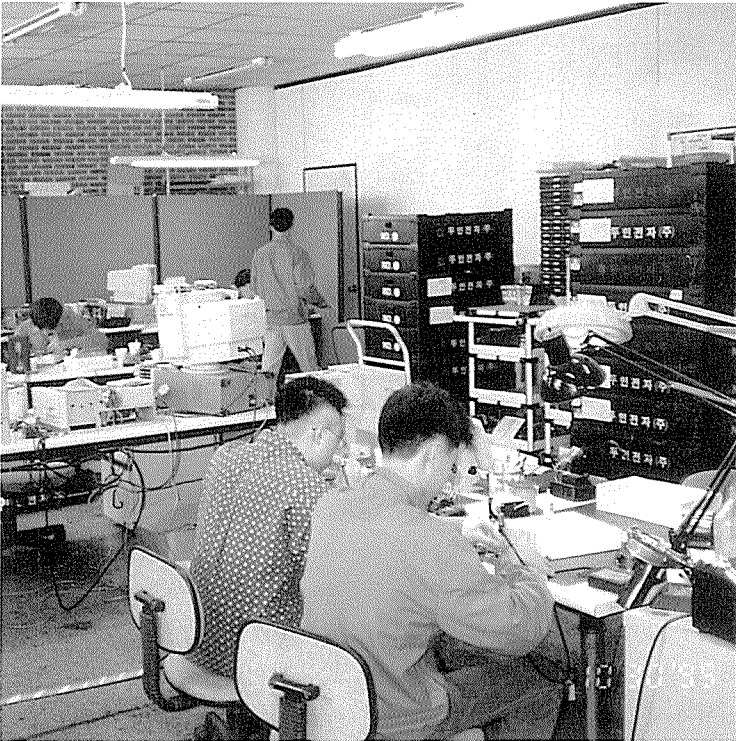


미래의 창; 멀티미디어 전문업체 해외 멀티시장 공략, 기술력으로 승부



두인전자의 뜨거운 개발현장

김 광 수

(주)두인전자 대표이사

멀티미디어 영상 통합보드
시대 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5-8
등원빌딩에 있는 멀티미디어 전문
업체인 두인전자(대표: 김 광수)
가 윈도우비전의 기능을 대폭 강
화, 향상시킨 윈도우 비전 II를 선
보이며 멀티미디어 영상 통합보드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다.

또한 동사가 개발한 PC용 멀티
미디어 영상카드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CD 시네마 II는 기존
CD 시네마의 기능을 한층 보강하
고,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멀티미
디어의 신개념 Edutainment 기
능을 충실히 지원하는 본격
MEPG 보드인 것이다.

회사개요

설립일 : 1990년 8월 20일
대표이사 : 김 광 수
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5-8
전화번호 : (02)3470-6300
자 본 금 : 9억원
종업원수 : 93명
생산품목 : PC비전, 마이캠, 윈
도비전, CD-시네마, 비전드르
우, 비전텔, 비디오 메이커 등.

「이번에 개발된 CD 시네마 II
는 가격이나 성능면에서 외산 제
품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고 자
부합니다.」 두인전자 유수근 연구
실장은 「CD시네마 II」가 현재까
지 개발된 동화상압축, 재생카드,
MPEG 카드로서는 세계에서 가
장 우수한 제품이라며 강한 자신
감을 보여 주었다.

CD 시네마 II의 특징은

첫째, 완성도 인데 DOS &
Windiws에서 자유로운 화면크기
및 위치 조정이 가능하고, 음악
CD, CD-I DV, 비디오 CD 및
MPEG 파일은 물론 대화형(Inter-
active)MPEG 규격인 비디오 CD
2.0까지 완벽하게 지원하며, 특히
고해상도 정지화(704×480)를 지
원하는 최초의 MPEG 디코더로
서 의미를 갖는다. 원하는 장면을
정지, 캡처할 수 있는 캡처기능이
포함되었고, 함께 제공되는 이미
지 에디터를 이용하면 정지화상을
자유롭게 편집할 수도 있다.

둘째, 효율성을 들 수 있는데 비디오 CD 2.0 규격에 따라 비디오 CD에 포함되어 있는 대화형 캡션을 이용하면 화면상에 캡션자막 표시는 물론, 훌륭한 영어학습용 교재로서의 활용 또한 가능하다. 자막을 켜고 끌 수 있으며 한글, 영어 자막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영화 대상의 한부분을 선택하면 그 대사가 있는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여 그 부분부터 자막을 보여주면서 재생하므로 효과적인 반복청취 학습을 할 수 있다. 한편 원하는 부분만을 반복해서 재생하거나, 한글이나 영문, 또는 두가지 캡션 데이터를 프린트해 볼 수도 있다.

이 기능은 멀티미디어 보드가 나아가야 할 바를 새롭게 제시한 CD 시네마 II의 새로운 기능이다.

셋째, 호환성인데 오버레이 기능을 포함한 대부분 MPEG 보드와는 달리 피쳐커넥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어떤 VGA카드와도 사용할 수 있으며, Windows 해상도나 색상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1024×768 True Color, 72Mhz, Non-Interlaced Mode까지 지원한다.

브레인 스토밍 통한 신제품 개발 열기

두인전자는 93명의 직원이 모두 30대의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업체로 이중 연구개발 인력이 30여명에 이르는 개발 전문업체이



다.

지난 90년 8월 창립 당시부터 이 회사의 연구개발 부문을 진두지휘해 온 유 실장은 PC에서 멀티미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보드 개발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91년 국내에도 PC보급 붐이 막 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PC를 멀티미디어에 활용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확신하에 우선 PC에서 TV를 수신할 수 있는 카드, 「PC비전」을 지난 92년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

93년에는 멀티미디어 VGA카드인 오스카를 개발 출시 했으며 TV는 물론 비디오까지 PC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카드, 「윈도우비전」을 개발한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영상압축 기술

을 활용해 동영상도 수신할 수 있는 MPEG카드 「CD시네마」를 개발하게 이룬 것이다.

유수근 실장은 이러한 제품들은 수출을 겨냥해 개발된 제품들이며 설치가 간편하고 기능이 단순화된 점이 특징이라고 밝힌다.

또한 이들 제품은 일본과 미국의 PC업체 및 유통업체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VOD와 화상회의 서비스가 실시될 것에 대비해 이에 적용할 단말기 개발에도 주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제품의 완성도가 뛰어난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KOEX에서 개최된 한국전자전에도 출품 자체 개발된 제품들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도 큰 성과.

사실 이러한 성과는 이 회사의 부설 연구소인 두인정보통신 연구소와 30여명의 전문연구 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주의 사람들의 이야기다.

두인정보통신 연구소는 91년 5명으로 시작 초창기 정보통신관련 제품의 용역을 주로 맡아 92년 PC용 비디오 텍스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주위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다.

전직원이 자주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두인맨들은 브레인 스토밍제를 도입, 이를 통해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토론한다.

왜 PC에서 TV를 볼 수 없을까?라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구현, 개발된 PC비전도 이 브레인 스토밍제의 산물이다. 국내 최초 PC비전 개발은 두인맨들에게 자부심과 사업출범시의 단순하고 막연했던 멀티미디어 시장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두인맨들의 노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적 감각을 익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브레인 스토밍제를 유지하는 한편 자주 외국의 선진기술을 배우기 위한 해외시찰을 갖고, 기술교류나 상품체휴를 모색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탄탄한 연구인력 바탕 멀티미디어 신제품 속속 개발

두인전자의 주요 개발품

PC비전	PC에서 TV를 수신하여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골드+, 실버+, 클래식 등 3가지 모델이 있음.
마이 캡	영어 대사를 화면 하단에 글자로 표시해 주는 캡션 디코더
비전 드로우	윈도즈용 그래픽 에디팅 소프트웨어
비전 텔	통신용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윈도우비전	본격적인 영상카드로 정지화·통화상의 저장 및 편집이 가능·화면크기를 가로·세로 각각 1/700, 1/480까지 조절 할 수 있음.
비디오메이커	PC상에서 편집된 화면을 TV와 VCR로 출력해 주므로 가정용 비디오제작, 브리핑, 프리젠테이션, 애니메이션 자료 제작이 가능. 또한 PAL 방식을 NTSC 방식으로 변경 녹화 가능
PC비전 슈퍼	TV, VCR, LPP, 캠코더 등의 신호를 수신하여 이중 주사 방식으로 고화질 영상을 PC모니터에 재생합니다.
PC비전 원리	옵션 보드인 PC비전 원리를 추가로 장착하면 윈도환경에서 TV수신 및 동화상, 정지화상 저장, 재생 등이 가능한 영상카드로 업그레이드 됨.
CD 시네마	별도의 장치 없이도 비디오 CD, 가라오케CD, CD-I /DV의 디지털 영상을 이중 주사 방식으로 재생, 또한 일반 음악 CD로 스피커를 통해 재생
사운드 엑센트	본격적 16비트 사운드 카드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와 노래방까지 즐길 수 있음.
오키토키	사운드 엑센트 16, CD-ROM 드라이브, 다이내믹 마이크, CD-ROM 드라이브, 다이내믹 마이크, CD-ROM 타이틀, PC용 스피커, 오성식 생활영어 우수웨어 등이 제공.
CD세네마II	별도의 영상보드 없이도 비디오 CD, 가라오케CD, CD-I. DV, 대화형 CD를 포함한 모든 MPEG 타이틀을 PC에서 쉽게 재생할 수 있으며 화면 조절과 편집까지 할 수 있음.
윈도우 비전II	윈도우비전과 CD시네마의 일체형 보드
윈도우비전 II 플러스	고품격 화질의 전문가용 영상 통합 보드

두인전자가 초창기 정보통신 관련 제품의 용역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동안 컴퓨터 시장에서는 새로운 조짐이 보였다.

즉 PC를 통해 텍스트는 물론 그래픽·음성·음향·애니메이션·

동화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종합 처리하는 멀티미디어시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추세에 자극받은 두인전자의 연구진들은 1년여 동안의 기획 및 연구기간을 거쳐 92년

마침내 국내업계 최초의 멀티미디어카드인 「PC비전」을 개발, 시장에 첫선을 보였다.

「PC비전」개발을 통해 멀티미디어, 그중에서도 영상부문에 심취해 있던 두인정보통신 연구진들은 이후 캡션디코더인 「마이캡」(92년 12월), 윈도즈용그래픽에디팅소프트웨어인 「비전드로우」(93년 10월), 통신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인 「비전텔」을 잇달아 개발해 내놓는다.

이런 가운데 두인정보통신연구소의 외형도 차츰 커져, 5명으로 시작한 연구인력이 30명으로 늘었으며 업무영역도 점점 다양해지면서 통신시스템, 뉴미디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연구실로 나뉘었다.

두인은 이같은 탄탄한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올들어 멀티미디어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제품을 속속 개발해 내놓았다. 이 중 올해 9월에 출시된 「윈도우 비전 II」는 Windows 및 DOS에서의 TV 수신은 물론 영상의 저장·재생과 편집, 오버레이, MPEG 기능 등을 한데 묶은 본격적인 멀티미디어 영상통합보드이다. 기존의 윈도우 비전과 CD 시네마의 기능을 모두 만족하는 새로운 차원의 통합보드라는 측면에서 눈길을 끄는 윈도우비전 II의 특징은 완성도 및 효율성, 편리성, 경제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윈도우비전 II의 완성도 및 효율성을 살펴보면, 카드 한장에 TV 수신, 오버레이, MPEG



의 3가지 기능이 통합·구현되므로 각각의 기능별 보드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다 완벽한 하모니를 제공하며 슬롯을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신개념의 영어학습 CCI 개발

원 두인전자는 멀티미디어 보드를 이용한 신개념의 영어 학습틀인 CCI(Closed Caption Interactive)를 개발했다 따라서 영화 CD로 영화를 감상하면서 영어공부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인전자가 최근 출시한 압축동영상 재생카드(MPEG) 「CD시네마 II」는 기존 MPEG 카드가 단순한 영화감상용으로만 사용된 것과 달리 영화의 영어자막을 표시해주는 CCI(Closed Caption Interactive) 기능을 추가해 영어학습에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CCI 기능은 흔히 보는 비디오 테이프의 캡션기능과 비슷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종이 자유로워 훨씬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다. 비디오 테이프의 캡션기능은 영어대사를 다시 듣고 싶을 때 테이프를 멈추고 되감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복학습이 쉽지 않다. 이에 반해 영화CD 캡션기능은 시청하고 싶은 장면의 첫대사와 마지막 대사를 마우스로 지정해주면 듣고 싶은 횟수만큼 반복해준다. 또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해당단어가 사용된 대사를 차례로 검색해주므로 다양한 표현방법을 익힐 수 있다. 대사의 특징

부분을 마우스로 누르면 비디오 장면이 그 대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재생되기도 한다.

캡션문장도 비디오 테이프와 달리 영화화면에 겹치지 않고 별도의 원도에 출력된다. 이 캡션원도는 한글과 영문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으며 캡션문장은 프린터로 인쇄해 볼 수도 있다.

아직은 이 규격으로 생산된 비디오 CD 타이틀이 거의 없어 당장 이용하기는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영어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올 연말까지 10여개의 타이틀이 나올 전망이다.

두인전자의 보배, 두인전자 사람들

91년 3억 7,000만원, 92년 4억 2,200만원, 93년 16억원 94년 48억원 95년 175억원 등 급

속한 성장을 이룩한 두인전자는 생산기술개발과제 선정(종합정보제작시스템), 특례업체 선정(연구분야), 공업발전기금지원사업 선정 등 대외적으로도 장래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6명의 설립 멤버로 출발한 두인전자는 총인원 93명으로 성장했으며 두인정보통신연구소, 기획관리실, 경영정보실, 영업부로 조직을 이루었다.

특히 두인전자 인력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두인정보통신연구소는 통신시스템연구실, 시스템소프트웨어연구실, 뉴미디어개발실로 나뉘어져 각 연구실별로 우수근 실장(34), 황종범 실장(34), 김진목 실장(39)을 중심으로 독립적 연구를 보장받고 있다.

연구원들부터 회사의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20~30대 초반으로 구성되어 이제 설립 6돌을 맞이하는 젊은 두인전자는 젊은 개발사에서 느낄 수 있는 '열정' 이상으로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종산 기획실장(34)은 "두인전자의 가장 큰 재산은 바로 두인전자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개성이 강한 이들을 묶어주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예의에 있습니다"라며 '예의'를 사뭇 강조한다.

설립 당시부터 중요하게 여겨온 이 정신은 대학 선후배, 고교 동창 등으로 구성된 두인전자를 받치는 기둥이며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한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는 차갑고 인간답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두인전자는 그런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근본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말투에 어질 仁자를 사용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기술은 발전시키되 인간다움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 그래서 삼삼오오 모여서 제품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두인맨의 모습에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